미래를 향해 약동하는 교회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라는 책을 쓴 해리 리더 목사는 기존 교회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해 있는 '기념비를 세워 놓고 거드름을 피우는 교회'(Monument church),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Maintenance church), 그리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시도하는 '약동하는 교회'(Movement church)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약동하는 교회'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델이라고 해리 리더 목사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서 이런 '약동하는 교회'의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재에 안주하는 교회를 뛰어넘어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교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모델교회 중 하나로 평창동에 있는 예능교회(담임: 조건회 목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능교회라고? 그 교회 한번 들어 봤는데… 혹시 연예인교회 아냐?' 독자들 중에는 이런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예능교회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현재의 예능교회는 더 이상 과거의 예능교회가 아니다. 예능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과거의 시간 속에 멈춰버릴 뻔했던 교회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약동하는 교회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예능교회가 걸어 왔던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더듬어 보았다. 또한 현재 예능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앞으로 예능교회가 모색하려는 새로운 변화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것을 통해 '약동하는 교회'를 지향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나누고자 한다.

과거의 회고

마른 뼈 같던 교회가 기적처럼 살아났다

조건회 목사는 곽선희 목사가 소망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소망교회 성도였다. 곽 목사가 조 목사의 누나 집에서 처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조 목사는 청년으로 소망교회의 개척 멤버였다. 따라서 소망교회 성장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조 목사는 소망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기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소망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계속해 왔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의 한 사람 아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구비된 환경에서 사역을 했던 그였다.

그런 그가 부임 당시 문제가 많았던 예능교회로 오게 된 것이다. 예능교회는 1974년 8월 구봉서 성도(현 예능교회 은퇴장로) 집에서 하용조 전도사(현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의 인도로 성경공부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이 그 모태가 되었다. 1976년 3월 7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채플에서 '연예인교회'로 출발하여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1990년 교회 이름을 '예수 능력'의 준말인 '예능교회'로 변경하였으며, 1999년 12월 30일 평창동 156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새 성전에 입당하기까지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게 됐다. 그러나 처음 예능교회로 부임했을 때 조 목사가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조건회 목사

"12년 전 제가 예능교회에 왔을 때 이미 이 교회는 연예인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다른 교회로 옮겨갔고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마저 진화되지 못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화장실도 구식이었고, 본당에서는 전깃불이 약해서 저녁예배 때는 성경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조 목사는 "목회 초반에는 담임목사인 제가 어이없이 성도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과거의 일이기에 말을 아끼는 조 목사인지라 자세하게 캐묻지는 않았지만, 험난한 세월을 보낸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다. 그런 예능교회였기에 지난 12년간의 변화는 한마디로 기적 그 자체였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난 것과 같은 기적 말이다.

교회에는 설교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필요했다

조건회 목사는 곽선희 목사의 영감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소망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능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조 목사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성도들에게는 설교 이상의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저로서는 설교만으로 전통적인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조건회 목사가 말하는 시스템이란 어떤 행정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 외에 성도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사역을 말했다.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헌신과 봉사를

"마른 뼈와 같았던 전통적인 예능교회를 제자훈련으로 체질을 바꾼 조건회 목사는 올해 셀 목회를 병행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성숙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회 목사가 처음 도입한 사역이 '새가족 사역' 이었다. 이 새가족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오는 성도들이 조금씩 정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에게는 배우고 자라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온누리교회의 '일대일양육' 이었다. 이 일대일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은 설교만으로는 채워지지 못했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능교회는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교회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다.

제자훈련만이 교회의 체질을 바꿀 수 있었다

새가족 사역과 일대일양육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조 목사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됐지만, 여전히 무엇인가가 더 필요했다.

"그때 만난 것이 바로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제자훈련이야말로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목회의 동역자로 삼는 사역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제자훈련이 벌써 6년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90여 명의 건강한 소그룹지도자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600여 명의 소그룹구성원들이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현재 예능교회에는 1,400명의 성인이 출석하게 됐다.

조건회 목사는 제자훈련이야말로 예능교회를 바꾼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고 말한다. "예능교회가 그 어두웠던 과거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지금과 같이 변화된 것은 제자훈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이 아니었더라면 예능교회는 어려운 과거를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조건회 목사는 전통적인 교회를 제자훈련하는 교회로 바꾸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교회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영성훈련 시스템은 '제자훈련' 이 가장 강력한 것임을 힘주어 강조했다.

현재의 변화

사명과 핵심가치가 이끄는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교회란 인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적이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런 취지로 예능교회는 최근 교회의 사명과 핵심가치를 결정했다. "'축제와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선언문입니다. 여기서 축제란 대그룹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눔이란 소그룹과 복음 전도를 의미합니다."

조 목사의 설명을 재분석해 보면, 예능교회의 목적은 사실 다음의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그룹',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도' 였다.

"저희 교회의 핵심가치는 예배의 감격, 나눔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능교회의 핵심가치는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었다. 즉 예배와 소그룹과 전도라는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예능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였다.

예능교회의 사명선언문과 핵심가치에 대한 조건회 목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이 단지 구호나 유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느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사명선언문과 핵심가치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사명선언문과 핵심가치를 분석해 보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경적으로 걸러내지 않은 채 짜깁기 식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의 현장에 가 보면, 그것은 단지 목사들의 비전일 뿐 성도들에게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예능교회의 사명선언문과 핵심가치는 다른 교회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느껴졌다.

문화 건축가로써 문화사역에 투자하다

조건회 목사는 '문화 사역자' 또는 '문화 건축가' 로도 널리 알려진 목회자이다. 교회 밖에서는 한국 다리놓는사람들(Bridgebuilders Korea)의 대표로 섬기고 있으며, 예장 통합측의 문화선교연구원의 이사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단편영화 제작을 통해 기독교 내의 인재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영화를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03년도부터 '서울-기독교영화축제' 개최로까지 이어지며 척박한 기독교 문화 살리기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

더불어 예장 통합측 총회의 여름성경학교 공과 지도용 단편영화도 제작하는 등 교회 안팎에서 기독교 문화의 전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문화 건축가'라고 불릴 만하다.

예능교회가 가진 독특한 자원으로는 유난히 문화예술인들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조 목사는 교회 내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문화 사역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문화 사역을 예배에 접목시켜 드라마 공연 등 '영감 있는 예배'를 기획하고, 각종 교회 집회 때도 이들을 활용해 믿지 않는 이들도 거부감 없이 교회 문턱을 넘도록 하고 있다.

제자훈련과 셀 목회를 병행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목회 동향 중 얼마 전부터 눈에 띄는 것이 셀 목회이다. 제자훈련의 모델교회로 잘 알려진 안산동산교회와 제자교회도 지금 이 셀 목회를 수용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예능교회도 최근에 셀 목회와 제자훈련을 병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건회 목사는 셀 목회의 도입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저희 교회의 소그룹은 소그룹 자체가 가져야 할 역동성과 생산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소그룹이 가진 나눔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풍성하게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셀 목회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나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셀 목회가 가진 역동성과 재생산의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것이 제자훈련 목회에서 셀 목회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조 목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이 아니라 병행입니다. 셀 목회가 가진 좋은 장점을 소그룹 사역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소그룹지도자를 개발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인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회 목사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제자훈련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셀 목회를 도입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자훈련은 우리 교회의 핵심사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조건회 목사는 계속해서 예능교회의 시도는 '하나의 실험' 임을 강조했다. 화평교회가 가정교회를 제자훈련에 성공적으로 접목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자훈련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제자훈련이 다양한 다른 사역과 접목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예능교회 역시 셀 사역을 제자훈련에 성공적으로 접목하여 한국 교회 안에 또 하나의 멋진 모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순장반을 코칭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능교회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코칭 시스템' 의 도입이다. 기존의 소그룹지도자 관리는 사랑의교회처럼 순장반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담임목사가 전체 소그룹지도자와 만남을 가졌었다.

그런데, 이제는 소그룹지도자(셀리더)들과 담임목사 사이에 '셀 코치' 를 두고 있다. 이 셀 코치 제도가 사실 새로운 코칭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 셀 코치는 셀 리더의 리더 격으로 매주 셀 리더들을 만나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담임목사와 매주 만나 셀 사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결국 담임목사는 셀 코치의 사역을 지원하고, 셀 코치는 셀 리더의 사역을 지원하는 이중 관리 제도가 새로운 코칭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순장반과 같이 모든 소그룹지도자들을 만나는 시스템은 없어져버린 것일까? 조건회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전체 셀 리더들과의 만남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공유할 것은 공유하되, 일상적으로는 코칭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조건회 목사는 기존의 순장반에서는 담임목사와 소그룹지도자들의 의사소통이 일방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기존의 순장반은 순장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점점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칭 시스템을 통해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저의 기대입니다. 앞으로는 소수의 정예 셀 코치들을 만나 현장의 다양한 상황들과 필요들을 듣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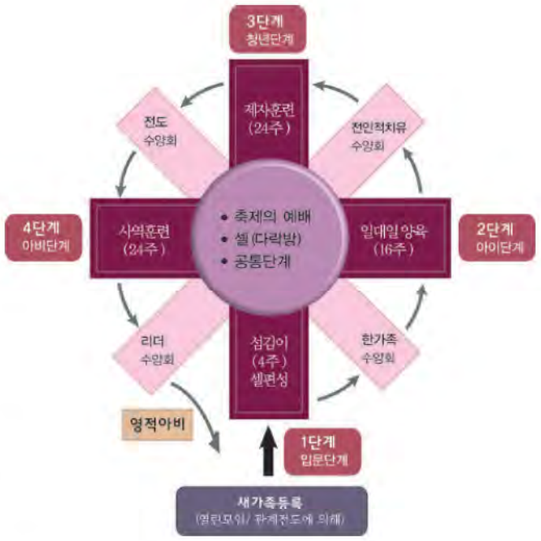
이러한 코칭 시스템 역시 앞으로 주목해 보아야 할 일종의 실험임에 틀림없다. 이 실험에서 성공하려면 코치(Coach)와 코치 받는 사람(Coachee) 간에 이루어지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문헌들이 지적하듯, 코칭의 성패는 코치와 코치 받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예능교회의 코칭 시스템이 담임목사와 평신도지도자 간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미래- 더블크로스 시스템을 향하여

내년부터 예능교회는 'Double-Cross 양육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양육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 커리큘럼은 새들백교회의 야구장 커리큘럼과 같이 예능교회의 기본적인 양육체계가 된다. 이 커리큘럼의 특징은 이름 그대로 두 개의 Cross 사역을 교차시키는 데 있다.

가장 기본적인 Cross 사역은 섬김이 셀-일대일양육-제자훈련-사역훈련으로 이어지는 양육트랙이다. 이것은 정착-양육-훈련이라는 일반적인 양육트랙과 비슷한 것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 예능교회는 이 양육트랙을 기본 커리큘럼으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새로운 Double-Cross 사역은 이 첫 번째 트랙에 네 단계의 수양회로 구성된 트랙을 삽입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가족수양회-전인적 치유수양회-전도수양회-리더수양회로 이어지는 수양회트랙을 교차 삽입시킨 것이다.

기본적인 '양육트랙'만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수양회트랙'을 추가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 조건회 목사는 기존 양육트랙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양육트랙은 상당히 긴 시간을 규칙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트랙을 밟아서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의 짧은 수양회를 통해서 집중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수양회는 일종의 집중코스(Intensive Course)인 셈이지요."

성도 한 사람이 양육 시스템을 수료하는 데는 1년 6개월 과정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1년 6개월을 한 사람이 평신도지도자로 세워지는 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이를 조건회 목사는 기존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의 커리큘럼을 2년 64주 과정에서 48주로 축소했다. (온누리 일대일제자양육 과정과 중복과정을 생략하고, 셀 신학을 도입한 내용이 첨가됨. 단,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교재는 그대로 사용하되 내용만 약간 축소함)

"이 48주 과정은 지난 5년간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의 경험을 평가해 본 결과로 조정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일단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는 데 소요되는 2년은 우리 교회의 사정상 길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조건회 목사의 설명을 들으며, 이 양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계속 평가되는 결과들을 국제제자훈련원과 함께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 양육 시스템이 예능교회의 상황에 맞게 잘 정착되어, 양육트랙 없이 목회하는 많은 목사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게 되도록 부탁했다.

미래를 향해 약동하는 교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능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서둘러 평가할 수는 없다. 현재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와 내년부터 시도할 커다란 변화에 대해 미리부터 단정하는 것은 서투른 예측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능교회가 정말 깨어지기 어려운 과거의 껍질을 용기 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깨뜨리고 지금과 같은 교회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예능교회는 해리 리더 목사가 말한 '미래를 향해 약동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

예능교회는 변화하고 있는 교회이다. 변화시키지 않아야할 복음의 핵심은 보존하면서도 이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교회이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고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은 종과 같은 사역하고 있다. 바로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교회"라고 야단치실 것이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대가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어지는 변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능교회처럼 미래를 향해 약동하는 교회(Movement Church)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송정헌 목사〉

예능교회 목회의 쟁점과 제안

제자훈련에 셀 목회를 접목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자훈련을 포기하지 않고도 셀 목회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자훈련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셀 목회가 가진 장점들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앞으로 예능교회의 새로운 실험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셀 리더를 개발하는 기본적인 현장은 제자훈련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셀 목회에서는 셀 리더를 훈련하는 기간이 짧은 편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건강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옥한흠 목사가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을 2년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이다.

리더십 개발의 현장이 제자훈련 소그룹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기간 때문만은 아니다. 일반적인 셀 리더 개발 프로그램은 강의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셀 리더를 개발하는 현장은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소그룹 안에서 배워야만 소그룹을 이끌어 가는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자훈련 소그룹을 통해 셀 리더를 개발하는 원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셀 모임에서는 진리의 배움과 삶의 나눔이 균형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많은 셀 모임이 진리를 배우는 것보다는 삶을 나누는 데 역점을 둔다. 따라서 성경공부에 할애하는 시간보다 삶을 나누고 친교하는 데 할애되는 시간이 더 많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 없이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성경의 깊은 진리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삶의 실천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진리를 배우는 것과 삶을 나누는 것은 50대 50의 비율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역동적인 균형을 만들 수 있을까? 셀 모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성경공부도 하고 삶도 나누는 것을 모두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의 셀 모임 커리큘럼이 있다면, 반년은 성경공부 중심의 모임을 갖고, 반년은 삶을 나누는 것 중심의 모임을 가져보라. 배움과 나눔의 균형은 시간뿐 아니라, 커리큘럼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